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성경: 시편 89편 15-22절

Tag:사람,행복,하나님섭리,복,구약성경,시편

15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16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8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9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엿도다

21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시89:15-22)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설명이다.

다른 존재와 달리, 사람의 존재는 독특하다.

사람은 사육되지 않으며,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자연 속에 묻혀서 스스로가 자연인 채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것은

결코 그가 간절히 원해서는 아니다.

그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결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스토리가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가슴 무덤에 묻고 조용히 남겨진 생명을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고 할 때의 또 다른 존재는 누구인가?

그는 곧 하나님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진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비로소 남자가 되고, 아이는 엄마를 만나야 비로소 아이가 된다.(그렇지 않으면 비 맞은 들고양이와 다를바 없다.)

학생은 선생을 만나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 나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오늘 나에게 한 영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유대의 왕이 되었다. 그러기 전에 그는 극히 초라한 목동이었다. 양 몇 마리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형들도 많았지만, 전형적인 왕따였다.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내 놓을만한 번듯한 아들이 아니었다.

다윗은 양 새끼를 품고 잠을 청하였고, 서로는 부둥켜 안으면서 추위를 모면할 정도였다. 양을 지키다가 돌팔매를 손에 익혔고, 낡은 기타 하나가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고 그는 사무엘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비로소

사람구실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골리앗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돌팔매를 가장 용감하게 잘 하는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사울왕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기타실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 있는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다.

정작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많은 불합격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혼자서도 잘 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혼자서도 잘해야 하는 것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다. 밥 먹는거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사실 난 요즘 잘 못하지만) 옷 입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양치하는 것들은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거 잘 한다고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가?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담겨있다.

15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하다

1.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하나님께 관심을 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을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 16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2. 주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는데, 온 종일 계속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온 종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공로가 아닌, 자기 혼자서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뜻밖의 좋은 일들이 하루 종일 생긴다는 뜻이다.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살맛이 나고, 자기가 예뻐서 주목을 받고, 자기가 잘 하기 때문에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들은 많다. 세상은 도처에 놀랄만한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잘나고 놀랄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높아지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실력은 별 볼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다.

-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

## 18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3.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믿어야 한다.
  -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본거지라는 뜻.
  - 본거지는 어디 갔더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곳.
  -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한다.
-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